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K리그와 포괄적 파트너십 5년 연장 체결

2026. 2. 23.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오른쪽)와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왼쪽)가 21일(토)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포괄적 파트너십 계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2026. 02. 23. 서울 - 쿠팡플레이가 K리그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5년 연장 체결하며 동행을 이어간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21일(토)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이 열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조인식을 진행했다. 20년 만에 부활한 상징적인 슈퍼컵 개막에 앞서 열린 이번 조인식에는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와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참석해, K리그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2026시즌부터 5년간 K리그1·2 전 경기를 생중계로 제공한다. 주목도가 높은 경기뿐 아니라 시즌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경기를 양질의 중계로 선보여, 팬들은 언제나 원하는 경기를 최고의 시청 환경으로 즐길 수 있다.

2026시즌 쿠팡플레이는 중계 기술과 자체 콘텐츠 퀄리티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먼저, 인공지능(AI) 업스케일 장비를 도입해 K리그1 전 경기와 K리그2 주요 경기를 더욱 선명하고 안정적인 화질로 제공한다. 앞서 쿠팡플레이는 경기 특성에 맞는 특수 카메라, 분석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하며 K리그 팬들에게 양질의 시청 경험을 제공해왔다.

쿠팡플레이가 자체 기획·제작 및 송출하는 '쿠플픽'도 강화된 포맷으로 돌아온다. 2024년 합류 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근호 해설위원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와 이번 슈퍼컵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배혜지 아나운서가 새롭게 호흡을 맞춘다. 전문적인 시각과 생동감 있는 해설은 물론, 경기의 숨은 디테일까지 세밀하게 전달해 축구 팬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26시즌 첫 쿠플픽은 오는 28일(토) 오후 4시 30분 Kick-off하는 '수원 삼성'과 '서울이랜드'의 경기로 시작된다. 이정호 감독 체제 아래 검증된 전력을 빠르게 구성하며 승격을 노리는 수원과, 전시즌 K리그2 도움왕 에울레르를 비롯해 가브리엘, 오스마르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되는 서울이랜드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이날 쿠플픽에는 수원 삼성 출신 곽희주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며 더욱 기대를 모은다.

쿠팡플레이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축구 해설진과 안정적인 송출 시스템을 기반으로 K리그1·2 전 경기를 고품질로 선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계 기술 고도화와 ‘쿠플픽’ 등 콘텐츠 강화로 리그 접근성을 더욱 넓혀, 더 많은 팬들이 K리그를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청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플레이는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팬과 함께 호흡하는 K리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통해 ‘팀 K리그’와 세계적 명문 구단의 맞대결을 성사시키고, 지난 21일(토) 20년 만에 열린 K리그 슈퍼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팬들과 함께하고 있다.

2026시즌 K리그1과 K리그2 전 경기의 생중계와 다시보기, 하이라이트는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